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2

<龍과 龍의 大激戰>에 대한 새로운 읽기

김 주 현*

요 약

이제까지 〈용과 용의 대격전〉은 내용 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아나키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알레고리 또는 환상적인 작품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나키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규정되면서 그밖의 다른 중요한 특성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해적 방법과 더불어 단재 작품들과 맥락적 독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단재의 마지막 소설로 당시 현실에 대한 예언적이고 참언적(讖言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아울러 단재의 이후 행보를 예시해주는 작품이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이전 작품으로 〈꿈하늘〉(1916), 〈견문잡감(見聞雜感)〉(1921), 〈조선혁명선언〉(1923), 그리고 당대 작품으로는 〈예언가가 본 무진(戊辰)〉(1928), 〈선언〉(1928)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아울러 그것은 행덕추수의 『기독말살론』과도 밀접하다. 단재는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 역사를 통해 무진의 의미를 추적하였으며, 아울러 1928년이 '조선 성년의 해'가 될 것으로 믿었다.

'조선 성년의 해'는 〈선언〉의 '모든 것을 부인한 모든 것을 파괴하랴는 대계(大界)를 울니는 혁명의 북소리'라는 구절과 연결된다. 또한 〈용과 용의 대격전〉의 드래곤의 "正體的 建設"이 이뤄지는 날은 〈선언〉의 "無產階級의 眞正한 解放을 일우는 날"이다. 단재는 제국에 대한 파괴와 혁명을 통해 민중이 진정한 해방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단재는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1928년 드래곤이 나타나 반란과 혁명을 꾀함으로써 천국(天國)은 멸

*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망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곧 제국 일본 멸망을 예고하는 참언이다.

주제어: 용과 용의 대격전, 신채호, 행덕추수, 맥락적 이해, 진사성인출, 기독 참살, 참언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무진년과 '드래곤의 출현'
3. 『×××』『×××』와 고문 악형의 고발
4. '기독 참살'과 혁명의 주문
5. '건지둔괘(乾之遯卦)'와 참언
6.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작품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신채호는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미리와 드래곤의 차이를 적시하였는데, 동일한 용이지만 동양과 서양에서 그 의미가 크게 다름을 제시했다. 그리고 안국선은 〈금수회의록〉에서 까마귀의 이미지가 옛날과 지금이 크게 다름을 언급했다. 동일한 기표라 하더라도 시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언표나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성서해석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적(contextual) 이해와 주해(Exegesis)의 방법이 필요하다.

신채호의 작품들은 독해에 어려움이 있다. 그의 글쓰기는 바로 맥

락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재의 〈용과 용의 대격전〉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독서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작품은 전체 글쓰기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단재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 정론 등 다양한 글쓰기를 했다. 그의 텍스트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작가 개인으로 보면 앞뒤 텍스트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이 작품은 내용 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아나키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알레고리 또는 환상적인 작품으로 논의되었다.[1] 그런데 이 작품이 아나키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규정되면서 그밖의 다른 중요한 특성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해적 방법과 맥락적 독해를 통해 이 작품을 새롭게 독

1)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가운데 주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송재소, 「민족과 민중 - 〈꿈하늘〉과 〈龍과 龍의 大激戰〉에 나타난 단재 사상의 변모」,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편, 『단재 신채호와 민족 사관』, 형설출판사, 1980.
김진옥, 「신채호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2.
권희돈,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 연구」,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최수정, 「〈龍과 龍의 大激戰〉의 환상성 연구」, 『한양어문』 15, 한양어문학회, 1997.
김창현, 「신채호 소설의 미학적 특성과 알레고리 -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박중렬, 「단재의 〈꿈하늘〉과 〈龍과 龍의 大激戰〉 재론 - 환몽적 알레고리를 통한 역사 다시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12.
서은선, 윤일, 남송우, 손동주, 「신채호 아나키즘의 문학적 형상화 - 하늘(天)과 용(龍) 이미지의 전도(顚倒)」, 『韓國文學論叢』, 48, 2008.
서형범, 「傳統 知識人 丹齋 申采浩의 省察的 主體로서의 글쓰기 의식 - 〈龍과 龍의 大激戰〉을 통해 본 丹齋 晩年의 내면풍경」,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5.
김승환, 「단재 신채호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해해보려고 한다.

2. 무진년과 '드래곤의 출현'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작품의 시작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채호는 작품의 서두에서 아래와 같이 '신년 무진'을 강조하고 있다.

> 나리신다, 나리신다, 미리(龍)님이 나리신다. 新年이 왓다고, 新年 戊辰이 왓다고, 미리님이 東方 亞細亞에 나리신다.[2)]

'무진년'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그것은 이 작품을 성립시키는 주요한 근거이자, 아울러 작품의 화두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진년'은 신채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진 〈예언가가 본 무진〉에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 鄭鑑錄에도 『辰巳聖人出』의 一句가 記載되엇스나 그러나 이 韻이 神誌秘詞와 叶할 뿐 아니라 또 同一한 五言詩이니 이는 秘詞의 句를 該錄에서 紀錄한 것임이 明白하다. 그럼으로 나는 鄭鑑錄은 秘訣 外로 驅逐하고 古秘訣의 辰巳聖人出을 밋고저 한다.[3)]

단재는 무진년을 맞아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는 옛 비결을

2) 燕市夢人, 〈龍과 龍의 大激戰〉,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119면. 이하 이 작품의 인용시 인용 구절 뒤 괄호 속에 면수만 기입.
3) 신채호, 〈豫言家가 본 戊辰〉, 『조선일보』, 1928.1.1., 13면.

제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결을 믿고자 한다고 했다. '진사성인출'은 무진년을 맞는 단재의 소망이자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단재가 언급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자.

子丑猶未定 寅卯事方知 辰巳聖人出 午未樂堂堂[4]

먼저 이 구절은 『정감록』에 기재된 내용이다. 위 구절에 자축년과 인묘년 진사년 오미년의 비결이 제시되어 있다. 진사년에 성인이 나타나고 오미년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단재는 "鄭鑑錄은 秘訣 外로 驅逐"한다고 하면서도 '진사성인출'을 믿고자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진사성인출'의 운이 '신지비사'와 맞고 아울러 동일한 오언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신지비사'라는 것은 『고려사』〈김위제전〉의 일부를 말한다.[5] 단재는 '운'과 '오언'이라는 측면에서 '진사성인출'이 『신지비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고비결'은 '신지비사(神誌秘詞)'를 뜻한다.

> 朝鮮 最古의 史籍을 神誌라 한다. 神誌를 或은 人名이라 하며 或은 書名이라 하나 拙見으로는 神誌는 本來 古代의 官名, 三韓史의 臣智 곳 『신치』니 歷代 『신치』의 신수두 祭日의 致語를 모은 것이 잇섯든가 하니, 그 全書가 남아 잇스면 或 朝鮮의 『호머』 詩篇이 될는지도 몰를 것이나, 不幸히 神誌의 것이라고는 참 것인지 거짓 것인지도 몰를 震檀九變圖란 이름이 大東韻海에 보이며, 秘詞 十句가 高麗史에 보이며, 그 밧게는 流落된 三句가 전할 뿐이요.[6]

4) 김용주 편, 『정감록』, 한성도서주식회사, 1923, 104면.
5) 『고려사』에는 "又神誌秘詞曰 如秤錘極器, 秤幹扶疎樑, 錘者五德地, 極器百牙岡, 朝降七十國, 賴德護神精. 首尾均平位, 興邦保太平, 若廢三諭地, 王業有衰傾"이 나온다. 정인지, 〈김위제(金謂磾)〉, 『고려사 122 열전 권35』, 2~3면.
6) 신채호, 「전후삼한고」,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34면.

단재가 『신지비사』의 글로 제시한 것은 '진단구변도', '비사 10구', 그 나머지 '유락된 3구'이다. 흥미롭게도 단재는 〈꿈하늘〉(1916)에서 『고려사』의 〈김위제전〉의 '비사 10구'와 '진단구변국도'에 대해서 언급했다.[7]

> 『西郭雜錄』에 『神誌』의 『秘詞』라고 揭載한 바 잇스니, **辰巳聖人出 午未樂堂堂**의 一句가 잇나니, 『西郭雜錄』이 비록 信史가 아니나, 그러나 檀君이 『戊辰』 卽位하야 『乙未』에 唐藏에 移都하얏다 한즉 『辰巳 午未』가 마즈며 『堂堂』은 輿地勝覽에 『唐藏坪』을 一名 『庄庄』坪이라 하니, 堂堂庄庄이 거의 同音인즉 或 唐藏을 堂堂이라 함이니, 兩句도 神誌史의 씨침이라 하노라.[8]

그런데 단재는 『신지비사』의 "辰巳聖人出 午未樂堂堂"이라는 구절이 『서곽잡록』에 실렸다고 언급하였다.[9] 그는 『서곽잡록』이 비록 믿을 만한 역사는 아니나 '진사성인출'은 단군이 무진년에 즉위한 것을, '오미락당당'은 을미년에 '당장(唐藏)' 곧 '당당(堂堂)'에 도읍을 옮긴 사실을 기록한 『신지비사』에서 왔을 것으로 간주했다. '진사성인출'과 '오미락당당'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지비사』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곧 『서곽잡록』의 이 구절이 『신지비사』로부터 유래

7) 이에 대해서는 김주현,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 - 역사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12 참조.
8) 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일보』, 1931.10.28.
9) 현재 남아 있는 『서곽잡록』은 두 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패림』 제8집(탐구당, 1969, 112~123면)에 실린 이문흥의 「서곽잡록」이며, 다른 하나는 이의천(李倚泉)의 『서곽잡록』으로 원문은 일본 경도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國立中央圖書館, M古3-2000-7)으로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판본에서는 '辰巳聖人出 午未樂堂堂'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제3의 『서곽잡록』이 있거나 또는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감록』에는 두 구절이 실려 있고, 단재가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는 『정감록』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정감록』을 『서곽잡록』과 혼동했을 수 있다.

하였으며, 그렇다면 그것은 『신지비사』의 '유락된 3구' 가운데 일부에 해당된다. 단재가 『신지비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단재는 『고려사』 〈김위제전〉에 실린 신지'비사의 10구'와 『대동군부운옥』에 실린 '진단구변국도'를 〈꿈하늘〉에서 자세히 분석하였고, '유락된 3구'에 대해 다시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 해석했다.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 단재는 '진사성인출'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다. 무진년의 예언은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는 다섯 글자이다. 곧 진사년에 성인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진사'는 "무진 기사" 양년을 가리키며, '성인'은 궁예 왕건 이성계 정여립 등과 같은 인물을 말한다. 단재는 1928년 무진년이 "조선의 신운명을 개척하는 길년(吉年)"이며, 무진년에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중심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 했다. 말하자면 궁예나 왕건, 이태조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인물이 나오거나 정여립과 같은 혁명가가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드래곤이 왓다, 드래곤이 왓다, 인제는 天國의 末日이다.」

그러면 단재의 예언은 〈용과 용의 대격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언가가 본 무진〉은 〈용과 용의 대격전〉, 〈선언〉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쓰여졌다. 그런 점에서 〈용과 용의 대격전〉을 그것들과 맥락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는 미리와 더불어 드래곤이 출현한다. 단재는 드래곤을 강조했다. 드래곤의 출현, 그것은 단재가 말하는 '진사성인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드래곤은 늘 希臘 羅馬 等地에 滯在하야 드대여 西洋의 龍이 되야 늘 叛逆者, 革命者들과 交流하야 「革命」, 「破壞」 等 惡戱를 질기어 宗敎나 道德의 굴네를 밧지 안는 고로 西洋史에 매양 叛黨과 亂賊들을 드래곤이라 別命하야 왓섯다. 근세에 와

서는 드래곤이 또 虛無主義에 深感하야 더욱 激烈한 革命行爲를 가지더니 마참내 耶蘇 基督을 慘殺할 凶犯이 된 것이다(127면)

아-- 殘惡, 陰慘, 不德한 野獸的 强盜--强盜的 野獸--이 野獸의 蹂躪 밋테서 苦痛과 悲慘을 바더오는 우리 民衆도 참다 못하야 견듸다 못하야 이에 저 野獸들을 退治하랴는 撲滅하랴는--在來의 政治며 法律이며 道德이며 倫理이며 其他 一切 文具를 否認하자는 軍隊며 警察이며 皇室이며 政府며 銀行이며 會社며 其他 모든 勢力을 破壞하자는 憤怒的 絶叫『革命』이라는 소리가 大地上 一般의 耳膜을 울니엇다.[10]

단재에게 성인이란 궁예 왕건 이성계 정여립과 같은 인물들로 국가 건설을 꿈꾼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건설 이전에 파괴자이다. 드래곤은 혁명과 파괴를 즐기는 반역자 혁명자이다. 달리 드래곤은 진사년에 출현할 '성인'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선언〉과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드래곤은 모든 세력을 파괴하자는 '혁명가'인 것이다. 드래곤의 출현은 바로 혁명의 선언이요, 혁명가의 출현을 이야기한다. 단재가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 1928년 '성인의 출현'을 예고한 것처럼,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드래곤의 출현'을 언급했다.

3. 「×××」「×××」와 고문 악형의 고발

단재는 미리의 횡포 때문에 민중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제시했다. 미리는 총독으로 온갖 횡포를 일삼는데, 그것은 일제의 조선 통치의

10) 신채호, 〈宣言〉,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192면.

참상을 보여준다.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한국 침략을 노골화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이권의 침탈에 나선다.

> ㉠鐵道, 鑛山, 漁場, 森林, 良田, 沃畓, 商業, 工業…모든 權利와 利益을 다 빼앗스며 稅納과 賭租를 작구 더 바더 몸서리나는 搾取를 行하면서도 것흐로 「너의들의 生存 安寧을 保障하여 주노라」고 써들면 속음니다. ㉡革鞭 鐵椎 竹針질, 단근질, 電氣쏨질, 甚至於 口頭에 올니기도 慘惡한 「×××」「×××」 갓흔 刑罰을 行하면서도 ㉢軍隊를 出動하야 婦女를 찌저 죽인다, 小兒를 산 채로 뭇는다, 全村을 屠戮한다, 穀栗가리에 放火한다……하는 戰慄한 手段을 行하면서도 ㉣한두 新聞社의 設立이나 許可하고 「文化政治의 惠澤을 바드라」고 소리하면 속음니다.(122~123면)

단재는 미리의 입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위 부분은 그러한 현실을 그린 것이다. ㉠은 이권 침탈을 통해 강제 보호조약에 이르는 과정을, ㉡은 일본의 고문 실태를, ㉢은 만행의 실상을 보여주고, ㉣은 유화정책의 기만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곧 일제의 수탈을 통한 강점(1900년대), 고문과 만행의 무단 통치(1910년대), 문화 정치(1920년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단재 글의 맥락 속에서 살피고자 한다.[11]

> ㉠′ 一親日而五條가 立矣며 再親日而七約이 定矣오 三親日

11) 이제까지 단재의 글을 맥락적인 관점에서 살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승환은 〈용과 용의 대격전〉을 '콘텍스트'의 관점에서 살폈다. 그리고 본 연구자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꿈하늘〉을 고찰한 바 있다. 김승환, 「단재 신채호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 김주현,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 - 역사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12.

而軍隊가 解散矣며 四親日而韓國니 殖民案이 出矣오 電線鋏道도 亦以親日而許之矣며 森林鑛山도 亦以親日而讓之矣니[12]

㉠″ 强盜 日本이 우리의 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政權을 빼앗으며 우리의 生存的 必要條件을 剝奪하엿다 經濟의 生命인 山林・川澤・鐵道・鑛山・漁場……乃至 小工業 原料까지 다 빼앗어 一切의 生産機能을 칼로 버이며 독기로 끊고 土地稅・家屋稅・人口稅・家畜稅・百一稅・地方稅・酒草稅・肥料稅・種子稅・營業稅・淸潔稅・所得稅……其他 各種 雜稅가 逐日 增加하야 血液은 있는대로 다 빨아가고[13]

단재는 1908년 ㉠′〈여우인절교서〉에서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5조약)과 정미 7조약이 체결되고, 군대가 해산되며, 식민안이 제출되는 조선 식민지화 과정을 언급했다. 일본이 전선, 철도, 산림, 광산 등을 다양한 이권을 침탈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상황을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에서 "山林・川澤・鐵道・鑛山"을 빼앗고, 심지어 토지세, 인구세, 가축세 등 각종 세금으로 조선 인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광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조선혁명선언〉(1923)의 이러한 실상은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鐵道, 鑛山, 漁場, 森林, 良田, 沃畓, 商業, 工業…모든 權利와 利益을 다 빼앗스며 稅納과 賭租를 작구 더 바더 몸서리나는 搾取를 行하"는 것으로 기술했다. 일제는 그렇게 하여 보호와 안녕을 내세워 한국을 병탄하기에 이른다. 그런 점에서 〈용과 용의 대격전〉은 일제의 침탈과 착취의 현실을 전면화한 〈조선혁명선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편 ㉡에서는 각종 고문과 악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단재는

12) 錦頰山人, 〈與友人絶交書〉, 『大韓每日申報』 1908.4.14.
13) 〈조선혁명선언〉, 1면. 독립기념관 전시 자료 : 자료번호: 5-000770-000. http://search.i815.or.kr/ImageViewer/ImageViewer.jsp?tid=ex&id=5-000770-000.

3.1운동 이후 일제에 의해 자행된 고문의 실상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 연전에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수개월 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어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형을 받을 때의 상황과 형의 종류를 물었다. 그는 한탄하며 말하길 "지금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첫째 봉으로 때리기, 둘째 주리 틀기, 셋째 사지를 단근질하기, 넷째 죽침으로 손가락(손톱밑) 찌르기, 다섯째는 양손을 묶어 높은 시렁(高架)에 매달기, 여섯째 쇠시렁(鐵架) 아래에 세워 놓고 좌우로 흔들어 쇠못에 찔리게 하기, 일곱째 물을 코에 부어 질식시키기, 여덟째 낮고 좁은(지하) 감옥에 가둬넣고 수삼일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한 새로운 공기도 전혀 못 마시게 하기, 아홉째 종이로 심지를 만들어 양경의 가운데로 출입 진퇴시키기, 열번째 달군 쇠판이나 가시밭 위를 걷게 하기가 있는데, 대개 이러한 형벌은 칠십여 종에 이른다…(하략)

年前有以陰謀事件 繫獄數朔放出者 余問其被刑時情況 及刑之種類 其人悵然曰 今不能盡記也 棒打一也 周牢二也 炮烙四肢三也 竹針針手指四也 縛兩手縣之高架五也 立於鐵架之下左右動 必有鐵釘刺之六也 以水灌鼻使窒息七也 鎖之湫隘之獄中旣三數日不得食 又不能吸一點之新空氣八也 以紙爲炷進退出入之于陽莖之中九也 使之行走於煮鐵或叢刺之上十也 此等之刑蓋至於七十餘種(以下 省略)[14]

㉡″ 「陰謀事件」의 名稱下에 監獄에 拘留되야 周牢・枷鎖・단금질・챗직질・電氣질・바늘로 손톱 밑・발톱 밑을 쑤시는・手足을 달아매는・코구멍에 물 붓는・生殖器에 심지를 박는 모든 惡刑 곧 野蠻專制國의 刑律辭典에도 없는 가진 惡刑을 다 당하고 죽거나 僥倖히 살아서 獄門에 나온대야 終身 不具의 廢疾者가 될 뿐이라[15]

14) 大弓, 〈見聞雜感〉, 『天鼓』 2호, 천고사, 1921.2, 27면.
15) 〈조선혁명선언〉, 3면.

단재는 1921년 ㉡′〈견문잡감〉에서 봉으로 때리기, 주뢰, 단근질, 바늘로 손톱 밑 쑤시기, 수족을 매달기, 쇠못에 찔리게 하기, 코구멍에 물 붓기, 좁은 감옥에 가두고 굶기기, 생식기에 심지 박기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고문의 실상을 열거했다. 그것은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그는 그러한 고문이 70여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한 것들은 ㉡″〈조선혁명선언〉에 그대로 제시되었다. 사실 〈견문잡감〉은 〈조선혁명선언〉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수개월 옥에 갇혀 있다가"는 ㉡″"「陰謀事件」의 名稱下에 監獄에 拘留되야"라는 구절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혁명선언〉에서 제시한 고문은 "周牢·枷鎖·단금질·챗직질·電氣질·바늘로 손톱 밑·발톱 밑을 쑤시는·手足을 달아매는·코구멍에 물 붓는·生殖器에 심지를 박는 모든 惡刑" 등이다. 그러한 것들이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 "革鞭 鐵椎 竹針질, 단근질, 電氣씀질, 甚至於 口頭에 올니기도 慘惡한 「×××」「×××」 갓흔 刑罰"로 제시된다. 〈조선혁명선언〉에서 제시한 9가지 고문이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6가지로 집약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 갓흔 刑罰'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단재의 맥락적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심지어 구두(口頭)에 올리기도 참악한 「×심지」 「×주리」 같은 형벌(『조선문학』, 1964.8, 48면)
> 심지어 구두(口頭)에 올리기도 참악한… (6자 략함-편집부)…와 같은 형벌(『룡과 룡의 대격전』, 20면)
> 甚至於 口頭에 올리기도 慘愕한 「×××」 「×××」 갓흔 刑罰(≪신채호문학유고선집≫, 123면)

여기에서 「×××」 「×××」이 '심지어 구두에 올리기도 참악'하다는 것으로 보아 앞에 열거한 고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용과 용의 대격전』에는 그 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6자 략함-편집부"로 제시해놓았고, 이것을 수용한 『단재신채호전집』에서는 "六字略함-편집자"라 하여 실체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 작품을 처음 소개했던 『조선문학』에서는 "「×심지」「×주리」"라 하여 6글자 가운데 4글자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심지'라는 부분을 〈조선혁명선언〉과 비교해보면 "生殖器에 심지를 박는 모든 惡刑"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와 관련해 〈견문잡감〉의 "아홉째 종이로 심지를 만들어 양경(陽莖)의 가운데로 출입 진퇴시키기"라는 구절이 단서를 제시한다. '×'는 "양경", 곧 남자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심지」는 남자의 성기 가운데에 종이 심지를 쑤셔 넣고 출입 진퇴시키는 성고문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리'는 무엇인가?

> ㉢′ 서북간도의 참상을 들으니 이보다 지나치다. 어린아이들이 무지하다고 손바닥 가운데를 뚫어 끄는가 하면, 부인들이 겁약하다고 채찍을 가져와서는 항상 때리며 간음을 하였다. 또한 사람을 죽일 때는 서서히 큰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보고자 하여 먼저 수족을 자르는 것을 즐거이 하고 그 다음 가슴과 배를 가르며, 다음으로 그 머리와 목에 잘랐다. 한 사람의 몸을 대여섯 토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화풀이로 아무런 잘못 없는 집들도 불 지르고 태워버렸다. 아울러 산 사람들이 살아갈 집을 없애버렸으니 그 참상이 매우 심했다.
>
> 聞西北墾之慘狀 又有過焉 兒童之無知也 而貫掌心而曳之 婦人之怯弱也 而鞭笞備至 時復加之以姦淫 殺人之際又欲觀其宛轉呼號 以爲樂先斷其手足 次割其胸腹 次及其頭項 一人之身分而爲五爲六 遷怒其無辜之房屋 亦放火燒之 幷使生者 無樓活之所 甚矣其慘也[16]

16) 大弓, 〈見聞雜感〉, 27면.

㉢″ 最近 三一運動 以後 水原・宣川…… 等의 國內 各地부터 北間島・西間島・露領 沿海州 各處까지 到處에 居民을 屠戮한다 村落을 燒火한다 財産을 掠奪한다 婦女를 汚辱한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살은다 一身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에 내여 죽인다 兒童을 惡刑한다 婦女의 生殖器를 破壞한다 하야 할 수 있는 대까지 慘酷한 手段을 쓰어서 恐怖와 戰慄로 우리 民族을 壓迫하야 人間을 「산송장」을 맨들랴 하는도다[17]

단재는 ㉢′〈견문잡감〉에서 일제가 서북간도에서 행한 '어린아이들을 손바닥을 뚫는가 하면, 부인들을 간음하고 심지어 사지를 찢고 가옥을 불태우는' 등의 만행을 폭로했다.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에서는 "水原・宣川…… 等의 國內 各地부터 北間島・西間島・露領 沿海州 各處"에 이르기까지 "到處에 居民을 屠戮한다 村落을 燒火한다 財産을 掠奪한다 婦女를 汚辱한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살은다 一身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에 내여 죽인다 兒童을 惡刑한다 婦女의 生殖器를 破壞한다" 등 일본 군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을 열거하였다. 그는 일제가 국내외 한인들에게 다양한 고문과 만행을 저질렀음을 〈조선혁명선언〉에 적시함으로써 혁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단재는 〈견문잡감〉과 〈조선혁명선언〉에서 제시한 '참혹한 수단'을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軍隊를 出動하야 婦女를 찌저 죽인다, 小兒를 산 채로 뭇는다, 全村을 屠戮한다, 穀栗가리에 放火한다……하는" 등 '戰慄한 手段을 行하'였다고 했다. 국내외 각지에서 행해진 일제의 참혹하고 전율할 만한 수단을 그대로 열거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맥락 속에서 「×주리」를 해명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곧 〈조선혁명선언〉에 "婦女의 生殖器를 破壞한다"라는 구절이 그

17) 〈조선혁명선언〉, 4~5면.

것이다. 이를 「×주리」와 연결해보면, '×'는 부녀의 생식기, 곧 여성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심지」 「×주리」'에서 ×는 비속한 말이니 차마 그대로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재는 남성기에 심지를 박고, 여성기에 주리를 트는 성고문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18]

㉣은 3.1운동 이후 일본이 조선에 시행한 문화정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표면적으로 유화정책으로 돌아섰지만, 단재는 ㉣"한두 新聞社의 設立이나 許可하고 「文化政治의 惠澤을 바드라」고 소리"한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기만임을 제시했다.

> ㉣′ 이 野獸世界 强盜社會에 「正義니」 「眞理니」가 다 무슨 방귀이며 「文明이니」 「文化니」가 다 무삼 똥물이냐? 우리 民衆은 알엇다. 깨달엇다. 彼等 野獸들이 아모리 악을 쓴들, 아모리 요망을 피운들 이믜 모든 것을 否認한, 모든 것을 破壞하랴는 大界를 울니는 革命의 북소리가 엇지 遽然히 싸닭업시 멋칠소냐.[19]

단재는 문화정치를 통한 우민화와 기만 정책을 여지없이 폭로했다. 일본이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을 펴자 국내에 있는 지식인 일부가 동조하고 나섰는데, 단재는 〈조선혁명선언〉에서도 일제 강도 정치 아래에서 문화정책은 허상일 뿐이며, 아울러 그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선언문〉(1928)에서 "이 野獸世界 强盜社會에 「正義니」 「眞理니」가 다 무슨 방귀이며 「文明이니」 「文化니」가 다 무삼 똥물이냐?"라고 말함으로써 제국

18) 이에 대해서는 김주현의 『계몽과 혁명 - 신채호의 삶과 문학』(소명출판, 2015) 452~453면 참조.
19) 신채호, 〈宣言〉, ≪신채호문학유고선집≫, 192면.

주의자들이 외치는 문명과 문화 등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오로지 혁명만이 그들의 기만과 선동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천명했다.

4. '기독 참살'과 혁명의 주문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드래곤의 선동에 의해 기독이 참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 劈頭에 特號大字로 上帝의 외아들님 耶蘇 基督의 慘死라 쓰고 그 겻헤 二號大字로 「드래곤의 煽動이라」 쓰고 記事를 아래와 갓히 썻다.(124면)

드래곤의 기독 참살은 이 작품을 아나키즘이라고 규정하거나 단재와 일본의 아나키스트 행덕추수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미 단재와 행덕추수의 관련성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우선 이 둘의 관련을 살피기로 한다.

> 한편 申采浩는 廣東과 上海에서 아나키즘 運動을 정력적으로 펴고 있던 劉思復의 論說들을 탐독했으며 日本아나키즘의 元祖 幸德秋水의 『基督抹殺論』에 깊이 共鳴한 바 있었다.[20]

> 中國新聞 『晨報』에 기고한 그의 글에서 '日本에 오직 行德秋水 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라고 쓰면서 行德秋水의 『기독말살론』을 漢譯해서 소개했다.[21]

20)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142면.
21)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출판부, 1983, 173~174면.

> 1927년 또한 幸德秋水를 높이 평가하고『基督抹殺論』을 한역, 중국의 아나키즘 잡지『晨報』에 게재.[22]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에는 단재가『기독말살론』에 깊이 공명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신일철은 신채호가 행덕추수의『기독말살론』을『신보(晨報)』에 한역하여 실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본『아나키즘운동인명사전』에서는 신채호가 1927년 중국의 아나키즘 잡지『신보』에『기독말살론』을 한역해 실었다고 했다. 신일철과『아나키즘운동인명사전』에서는 단재가『기독말살론』을 한역한 것으로 나온다.

> 그럼에도 추산할 수 있는 시기보다 훨씬 뒤인 1928년에 차이가 보이는 것은, 신채호가『晨報』에『기독말살론』을 한역해서 실은 것은 차치하고『기독말살론』을 읽은 시기가 1927년경이기 때문에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23]

권문경은 단재가 1927년『기독말살론』을 번역했으며, 〈용과 용의 대격전〉을 바탕으로 기독교에 대한 단재의 사상적 변화가 1927년경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단재가『신보』에『기독말살론』을 한역한 것인가?『신보』는 북경(北平) 신보사(晨報社)에서 1918년부터 1948년까지 발간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시기에 발간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신보』는 그것이 유일하다. 본 연구자는 중국국가도서관에서 1923년 12월 1일부터 1928년 1월 10일까지『신보』마이크로필름 총 20개를 살폈지만 단재가 번역했다는『기독말살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신보』라는 신문의 특성상 그런 작품을

22) http://members3.jcom.home.ne.jp/anarchism/shinjitentext.html
23) 권문경,「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의『基督抹殺論』신채호의 아나키즘 - 기독교관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58, 일본어문학회, 2012, 136면.

장기간 번역해서 연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번역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기독말살론』의 번역 상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幸德秋水, 貍弔疋 譯, 『基督抹殺論』, 北京大學出版部, 1924.12.

『기독말살론』은 행덕추수(고토쿠 슈스이)가 1910년 6월 대역사건(大逆事建)으로 검거된 후 옥중에서 집필해 그해 11월 탈고한 글이다. 그가 1911년 1월에 사형당하고, 2월에 『기독말살론』이 간행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책은 발간되자마자 7~8천부 팔릴 정도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다.[24] 그것이 중국에 소개 번역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리조필(貍弔疋)이 번역한 『기독말살론』이 1924년 북경대학출판부에서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듬해(1925년) 1월 5일 『북경대학일간(北京大學日刊)』에 『기독말살론』의 광고가 실린다.[25] 이 책이 발간되자 중국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거리가 된다.

沈嗣莊, 張仕章, 彭長琳, 張孝候(張皕坊), 『評基督抹殺論』, 義利印刷公司, 1925.5.
英格利斯, 聶紹經 譯, 『闢基督抹殺論』, 上海廣學會, 1925.12.

『기독말살론』이 나온 이듬해 『評基督抹殺論』이 나왔다. 이것은 沈嗣莊, 張仕章, 彭長琳, 張孝候 등 4명의 저자가 『기독말살론』에 반박해 쓴 글들을 묶은 것이다. 그리고 『闢基督抹殺論』은 James W. Inglis의 글로 이 역시 『기독말살론』을 부정하는 저서이다. 책

24) 윤일, 남송우, 손동주, 서은선, 「고토쿠 슈스이의 『基督抹殺論』 비판 - 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1, 일본어문학회, 2008, 337~338면.
25) 〈基督抹殺論〉, 『北京大學日刊』, 1925.1.5, 제1판.

이 나온 지 1년만에 두 권의 저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말살론』의 반향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저서들에 대한 소개나 비평도 줄을 잇는다.

○『基督抹殺論』
雲台,「耕心齋筆記二則 基督抹殺論」,『聶氏家言旬刊』 제81기, 1926.1.25. 2~3면.
○『評基督抹殺論』
記者,「評基督抹殺論」,『時兆月報』 제20권 제7기, 1925년 29면.
「附錄 : 評基督抹殺論－爲基督教辯護的著作」, 『廣濟醫刊』 제2권 제6기, 1925, 131~132면
繆秋笙,「批評評基督抹殺論」,『中華基督教文社月刊』 제1권 제1기, 1925, 60~61면.
○『闢基督抹殺論』
頌羔,「闢基督抹殺論」,『中華基督教 文社月刊』 제1권 제4기, 1926, 75면.

이는 당시 중국 학계 및 교단에서 『기독말살론』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당시 다른 사람이 『기독말살론』을 번역했다는 정보는 찾기 어렵다. 만일 리조필이 단재의 필명이라면 『기독말살론』의 번역자로서 그 의미가 분명하다. 그런데 리조필은 그동안 누구인지 불확실하였으나, 최근에 북경대학 교수였던 유문전(劉文典)의 필명으로 밝혀졌다.[26] 1924년 책으로 번역이 되었고, 또한 1925년 1926년 중국 학계에 논란이 많았던 책을 1927년에 다시 번역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아무래도 신채호가 1927년 『기독말살론』을 번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그는 1928년

26) 李長銀,「幸德秋水『基督抹殺論』在近代中國的傳播和影響」,『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2-1, 2016.2, 222면.

법정 신문 때 황성신문 시절 행덕추수의 『장광설』을 읽고 무정부주의에 공명하였으며 자신을 아나키스트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27] 1929년 법정에서도 "행덕의 저서가 가장 합리한 줄을 알았다"고 언급한 점[28]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행덕추수의 저서를 꽤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행덕추수는 일본 형법 제73조, 즉 천황 시해를 모의한 죄로 체포되었으며, 감옥에서 최후에 쓴 글이 『기독말살론』이 아니던가.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단재가 "幸德秋水의 『基督抹殺論』에 깊이 共鳴한 바 있었다"고 언급하는 점도 단재가 『기독말살론』을 읽었음을 말해주는 표지이다. 신일철이 "'日本에 오직 行德秋水 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라고 쓰면서 行德秋水의 『기독말살론』을 漢譯해서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와전으로 보이지만, 단재가 그만큼 『기독말살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울러 〈용과 용의 대격전〉의 "붓과 칼로써 죽은 基督을 더 죽이니 從今 以後의 基督은 다시 復活할 수 업도록 아조 永永慘死한 基督이라"(125면)는 구절 역시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분명히 한다. 1925~1926년 북경 문단에서 『기독말살론』이 논란의 와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단재가 그 무렵 『기독말살론』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9] 그리고 그 책은 단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27) 「皇城新聞 때부터 나는 無政府主義者」, 『朝鮮日報』 1928.12.28.

28) 「日本 印度 中國 等 東方同志가 結託 강령규약과 회수속은 업다」, 『동아일보』, 1929.10.7.

29) 단재의 1927년 『기독말살론』 독서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재가 단재가 『기독교말살론』을 읽고 기독교관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권문경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단재가 1927년 『기독말살론』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독서는 1925년~1927년 사이 자유로울 수 있다. 1925년 1월 2일 〈낭객의 신년만필〉 이후 1928년 1월 1일 〈예언가가 본 무진〉 사이에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 연대에 대하야〉(『신대일보』, 1926.5.20~25) 외에 다른 글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1927년을 특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1925~1926년쯤 『기독말살론』을 보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기독교도는 기독이 역사상 인물이고 그의 전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실로 미망이며 허위이다. 미망은 진보를 저해하고 허위는 세도에 해롭다. 단연 불가피하게 허락하려면 그 가면을 벗기고 그 분장을 없애고 그 진상과 실체를 폭로하여 바라건대 세계 역사상으로부터 그것을 말살해 버릴 것을 선언한다. 基督敎徒以基督爲史的人物 以其傳記爲史的事實 實迷妄也 虛僞也 迷妄阻礙進步 虛僞有害世道 斷不可許之則剝其面具 褫其扮粧 曝露其眞相實體 自世界歷史上抹殺去之 謹此宣言[30]

㉡ 釋迦놈과 耶蘇놈을 식혀 「너희들이 남에게 苦痛을 밧을지라도 이것을 反抗 업시 安過하면 죽어서 너희의 靈魂이 天國으로 蓮花臺로 가리라」고 속이엇다. 이러한 魔醉藥들이 또 어대 잇겟느냐? 二千年 동안이나 크게 그 藥效를 보앗더니 至今에는 그 藥力도 다하야 고놈들이 점점 自覺하야 叛逆이니 革命이니 하고 써드는고나.(121면)

위의 구절㉠은 『기독말살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기독교에 대한 행덕추수의 입장이 여지없이 제시되어 있다. 『기독말살론』의 골자는 성서는 조작(僞作)일 뿐이며, 아울러 기독은 역사상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재는 석가, 예수 등을 민중을 속이는 마취약으로 간주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단재의 관점이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많이 변화되었음을 지적한다. 단재는 기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耶蘇 基督은 그 聖父인 上帝를 쎄쏘듯한 奸譎險惡한 性質을 골고루 가지신 聖子이엿섯다. 그 出生 後에 「聖父의 道」를 펴랴다가 겨오 三十이 넘어 예루살렘에서 猶太人의 凶手에 걸니엇섯다. 그러나 그때의 猶太人은 너무 얼띈 百姓이엿던 때문에

30) 幸德秋水, 貍弔疋 譯, 『基督抹殺論』, 北京大學出版部, 1924, 154면.

다 잡히엿던 耶蘇를 다시 놋쳐 十字架를 진 채로 逃亡하야 「復活」하다 自稱하고 歐洲 人民을 쇠기시사 모다 그 校旗下에 들게 하섯다. 十字軍 그 뒤에 「十字軍東征」, 「三十年戰爭」 갓흔 大戰爭을 誘發하야 一般民衆에게 사람이 사람 잡는 術法을 가라처 주엇스며 늘 「苦痛者가 福 밧는다. 逼迫者가 福 밧는다.」는 거진말로 亡國民衆과 無産民衆을 거룩하게 속이사 實際의 敵을 닛고 虛妄한 天國을 꿈꾸게 하야 모든 强權者와 支配者의 便宜를 주엇스니 그 聖德神功은 萬古歷史에 쓰고도 남을 것이다.(125면)

上帝가 잇다면 죽은 上帝이다. 죽은 上帝는 산 쥐색기만도 못하다. 말하자면 上帝도 滅亡하여야 올치--其實 내나 네나 上帝가 모다 上古 民衆의 一時 迷信의 造作이 아이엿더냐.
民衆의 造作으로서 얼마나 민중의 害를 끼처왔느냐?(136면)

단재는 예수교를 역사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한다. 그는 기독이 부활했다 속이고, 거짓말로 민중들을 속였으며, 허망한 천국을 꿈꾸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독 참살'은 행덕추수의 '기독 말살'과 상통한다. 행덕추수는 『기독말살론』에서 기독의 진상과 실체를 폭로하여 말살해버릴 것을 선언하였는데, 〈용과 용의 대격전〉에는 바로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단재가 『기독말살론』의 영향을 입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한 논자는 신채호가 "고토쿠 슈스이가 『기독말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취하고 있다"고 하며, 단재가 행덕추수의 논지를 제대로 수용했음을 언급했다.[31] 단재가 『기독말살론』의 영향을 입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한편 단재는 상제 역시 미신의 조작, 민중의 조작이라 했다. 상제를 기독과 같은 관점에서 본 것이다. 단재는 내세적 천국 구원보다는 현세적 낙원 건설을 강조했다. 단재의 의도가 기독 참살

31) 권문경, 앞의 논문, 144면.

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상제의 아들로 알려진 기독의 참살을 통해 종교적 구원의 불가능성을 제기하고 민중혁명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5. '건지둔괘(乾之遯卦)'와 참언

〈용과 용의 대격전〉은 예언적 성격을 담은 작품이다.[32] 그것은 〈예언가가 본 무진〉을 놓고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 부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이 작품 역시 무진년을 맞아 썼으며, 아울러 단재의 예언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 「왓다, 왓다, 드래곤이 왓다, 인제는 天國의 末日이다.」란 소리가 또 天宮을 振動한다.(126면)
> 「왓다 왓다 드래곤이 왓다…」의 소리만 四方에서 닐고 드래곤의 正體는 그림자도 보이지 안는다.(126면)

> ㉡ 또 귀신 하나가 궁중에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백제는 망한다(百濟亡). 백제는 망한다" 하다가 이내 땅속으로 들어갔다. 왕은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게 하니 석자 깊이에 거북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등에 글이 씌어 있었다.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새 달과 같네(百濟同月輪. 新羅如新月)."[33]

단재는 드래곤의 출현으로 '천국의 말일'이 도래한다고 했다. 〈용

32) 한 연구자는 일찍부터 〈용과 용의 대격전〉이 "단재 신채호가 독자들에게 남겨준 예언적인 발언"이라고 하여 그 작품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후 논자들은 그러한 면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권희돈,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 연구」,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452면.
33) 일연,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83, 99면.

과 용의 대격전〉에서 “왓다, 왓다, 드래곤이 왓다, 인제는 天國의 末日이다”라는 구절은 모두 7군데 나올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그 구절을 단재가 직접 읽었고, 또한 유사한 상황을 그린 『삼국유사』의 위 부분㉡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는 백제 말 의자왕(義慈王) 때 귀신이 대궐에 나타나 ‘백제는 망한다’는 참언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것은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천궁을 진동시킨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라는 말과 유사하다. 백제가 망한다(百濟亡)는 것은 백제가 보름달(百濟同月輪)이라는 말과 같다. 무당은 “둥근 달이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차면 기우는 것입니다(圓月輪者滿也 滿則虧)”이라 하여 백제의 멸망을 점쳤다. 그의 예견대로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 ‘왓다 왓다 드래곤이 왓다’는 말은 천궁을 뒤흔드는데, 이는 ‘천국의 말일’을 뜻하는 참언이며, 한 국가의 흥망을 예언하는 말이다.

> ㉢ 數學上의 「0」은 자리만 잇고 實物은 업지만 드래곤의 「0」은 총도, 칼도, 불도, 베락도, 其他 모든 「테로」가 될 수 잇다. 今日에는 드래곤이 「0」으로 表現되지만 明日에는 드래곤의 對象의 敵이 「0」으로 消滅되야 帝國도 「0」, 天國도 「0」, 其他 모든 支配勢力이 「0」될 것이다. 모든 支配勢力이 「0」되는 때에는 드래곤이 正體的 建設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이다(126~127면)

> ㉣ 彼等의 勢力은 우리 多大數 民衆의 否認하며 破壞하는 날이 곳 彼等이 그 存在를 일른 날이며 彼等의 存在를 일른 날이 곳 우리 民衆이 熱望하는 自由平等의 生存을 어더 無産階級의 眞正한 解放을 일우는 날이다. 곳 凱旋의 날이니 우리 民衆의 生存할 길이 여긔 이 革命에 잇슬 뿐이다.(193면)

단재는 드래곤의 정체가 ‘0’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드래곤이 왔다’는 것은 ‘0’이 왔다는 것이다. 단재는 그것만으로 부족했

던지 "今日에는 드래곤이 「0」으로 表現되지만 明日에는 드래곤의 對象의 敵이 「0」으로 消滅되야 帝國도 「0」, 天國도 「0」, 其他 모든 支配勢力이 「0」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국과 0의 관계는 백제와 보름달의 관계처럼 비유적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다시 ㉣〈선언〉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단재는 〈선언〉에서 그들(彼等)의 세력을 민중들이 부인하고 파괴할 때 그들의 존재를 잃을 것이라 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민중들의 적을 말한다. 그들이 존재를 잃는 날이 민중이 자유평등의 생존을 얻고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날이라고 했다. 단재는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제국이나 천국, 그리고 모든 지배 권력이 0이 되면 드래곤의 '정체적 건설'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드래곤은 파괴와 혁명을 일삼는 반당과 난적이다. 그러므로 '0'은 파괴와 혁명을 뜻한다. 단재는 드래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제국이나 천국, 그리고 모든 지배 권력이 끝나게 될 것이라 했다.

> 하고 占筒을 흔드니 乾之遯卦가 나온다. 道士가 大驚하야
> 「아--어--乾은 天이니 上帝요, 遯은 逃亡이니, 당신이 上典을 찾는 奴子가 안이라 逃亡한 上帝를 찾는 天使인가 봅니다.」
> 天使가 이 말에 놀내지 안할 수 업다. 그래서 두 무릅을 꿀고 공손이
> 「上帝의 게신 곳을 가라쳐 달나.」
> 하니 道士가 풀어 갈오대
> 「乾卦初爻의 「子」가 遯卦初爻의 「辰」으로 變하고 「辰」이 回頭하야 「子」를 克하야슴니다. 辰은 龍이오, 子는 쥐니 上帝가 龍(드래곤)의 亂에 逃亡하야 쥐구녕으로 들어갓슴니다. 古語에 「天開於子」라 하더니 오늘은 「天閉於子」올시다. 쥐구녁에 가서 上帝를 차지시오.」(135면)

건괘는 64괘 가운데 첫 번째 괘이며, 둔괘는 33번째 괘이다. '자(子)'가 '진(辰)'으로 변하고 진이 머리를 돌려 자를 이겼다는 것은

곧 상제가 용의 난을 피해 도망을 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제가 천궁을 버리고 쥐구멍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그가 바가지 구걸을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테스크하게 희화화된 모습이다. '건지둔괘(乾之遯卦)'는 비록 거북의 등에 씌어진 것이 아니라 점쟁이의 점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참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상제의 도망', 곧 상제의 패배를 뜻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건'을 천(天), 곧 상제로 해석하였다는 것은 천제, 즉 일본 천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34] 일본 천황을 '天孫'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미리는 총독으로 그가 한 통치 방법은 일본 총독이 조선에서 행한 통치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미리를 조선 총독, 상제를 일본 천황으로 놓고 보면 작품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드래곤의 출현으로 천국의 말일이 도래했다고 했다. 천국의 반란과 상제의 몰락을 염두에 둘 때 성인은 정여립과 같은 존재, 즉 당대의 안중근이나 행덕추수, 의열단원 김지섭, 또는 아나키스트 박열, 심지어 단재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단재는 1928년 드래곤이 나타나 자각된 민중들과 더불어 반란과 혁명을 꾀함으로써 천국(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서사를 완성했다. 나아가 천국이 망하면 드래곤의 정체적 건설이 드러날 것이라 했는데,

34) 단재는 "太陽을 崇拜홈은 上古 野蠻時代의 事라 …(중략)…其國號를 作ᄒᆞ엿던 者ᄂᆞᆫ 尙今ᄭᆞ지 不改ᄒᆞ니 野蠻的 風習을 尙未免홈이 아닌가", 또는 "태양을 숭배하여 휘장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야만의 풍습이다.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그것을 국기로 삼았다. 여러 신을 섬겨 제사하는데 신이 직사(職司)의 직분이 있고, 형제 자손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는데 신대의 야만스런 풍속이다. 저들은 그것을 국교로 삼고 개혁하지 않았다. 또한 한 가문의 왕을 존경하고 숭배한 것이 2천년에 이르렀지만 한 차례도 성을 바꾸는 일(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국민의 노예성이 지극히 부끄러워할 만하다(崇拜太陽 用諸徽章 上古野蠻之習也 而彼尙以之爲國旗矣 尊祀羣神 以爲神有職司之分 兄弟子孫之關係 神代草昧之風也 而彼且以之爲國敎 而未革矣 而彼且以之爲國敎 而未革矣 尊奉一系之君 至於二千年 無一次革姓之事 其國民之奴性 至可恥也)"라고 하여 일본의 천신 숭배주의와 일본 신사, 왕실을 비판하였다. 劍心, 〈日〉, 『大韓每日申報』 1910. 4. 3; 鐵椎, 「論日本之有罪惡而無功德」, 『天鼓』 1, 1921.1, 19~20면.

그것은 민중들에 의해 한국의 독립(지민국)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단재는 〈용과 용의 대격전〉과 동방부정부주의동맹의 〈선언〉을 작성하고 과감하게 혁명에 나섰다.

6. 마무리

〈용과 용의 대격전〉은 단재의 마지막 소설로 당시 현실에 대한 예언적이고 참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아울러 단재의 이후 행보를 예시해주는 작품이다. 그 동안 이 작품의 예언적 성격, 비유적 의미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이 논의에서는 단재가 작품에 제시한 비유의 의미를 풀어보았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이전 작품으로 〈꿈하늘〉(1916), 〈견문잡감〉(1921), 〈조선혁명선언〉(1923), 그리고 당대 작품으로는 〈예언가가 본 무진〉(1928), 〈선언〉(1928)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아울러 그것은 행덕추수의 『기독말살론』과도 밀접하다.

단재는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 역사를 통해 무진의 의미를 추적하였으며, 아울러 1928년이 '조선 성년의 해'가 될 것으로 믿었다. '조선 성년의 해'는 〈선언〉의 '모든 것을 부인한 모든 것을 파괴하랴는 대계(大界)를 울니는 혁명의 북소리'라는 구절과 연결된다. 또한 〈용과 용의 대격전〉의 드래곤의 "正體的 建設"이 이뤄지는 날은 〈선언〉의 "無産階級의 眞正한 解放을 일우는 날"이다. 단재는 제국에 대한 파괴와 혁명을 통해 민중이 진정한 해방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용과 용의 대격전〉은 〈예언가가 본 무진〉, 〈선언〉 등과 텍스트적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므로 맥락적 읽기를 통해 그 작품이 지닌 비유적 성격과 예언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예언가가 본 무진〉이 예언의 영역이라면, 〈선언〉에서는 직접 혁명을 촉구

하고 있다. 이 사이에 놓인 〈용과 용의 대격전〉은 예언과 혁명을 동시에 의미하는 참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재는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1928년 드래곤이 나타나 자각된 민중들과 함께 반란과 혁명을 꾀함으로써 천국은 멸망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곧 제국 일본 멸망을 예고하는 참언이다.

■ 참고문헌 ■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김용주, 『정감록』, 한성도서주식회사, 1923.

김주현,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 문학』, 소명출판, 2015.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5.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출판부, 1993.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신채호, ≪룡과 룡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일연,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83.

幸德秋水, 貍弔疋 譯, 『基督抹殺論』, 北京大學出版部, 1924.12.

권문경,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의 『基督抹殺論』과 신채호의 아나키즘 - 기독교관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8, 일본어문학회, 2012, 121～148면.

권희돈,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 연구」,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441～453면.

김승환, 「단재 신채호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53～78면.

김주현,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 - 역사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12, 297～324면.

김진옥, 「신채호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2.

김창현, 「신채호 소설의 미학적 특성과 알레고리 -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363～396면.

박중렬, 「단재의 <꿈하늘>과 <龍과 龍의 대격전> 재론 - 환몽적 알레고리를 통한 역사 다시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12, 407～428면.

서은선, 윤일, 남송우, 손동주, 「신채호 아나키즘의 문학적 형상화 - 하늘(天)과 용(龍) 이미지의 전도(顚倒)」, 『韓國文學論叢』, 48, 2008, 369~401

면.

서형범, 「傳統 知識人 丹齋 申采浩의 省察的 主體로서의 글쓰기 의식 - <龍과 龍의 大激戰>을 통해 본 丹齋 晩年의 내면풍경」,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65~100면.

송재소, 「민족과 민중 - <꿈하늘>과 <龍과 龍의 大激戰>에 나타난 단재 사상의 변모」,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편, 『단재 신채호와 민족 사관』, 형설출판사, 1980, 581~600면.

신채호, 「전후삼한고」,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윤일, 남송우, 손동주, 서은선, 「고토쿠 슈스이의 『基督抹殺論』 비판 - 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1, 일본어문학회, 2008, 335~352면.

肖伊緋, 「劉文典首譯《基督抹殺論》」 『中華讀書報』, 2016.3.30.

<Abstract>

Newly Reading of “The Fierce Battle of Two Dragons”

Kim, Ju-Hyeon

Until now, “The Fierce Battle of Two Dragons” has been discussed as a fantasy or allegory work in the aspect of form or as an anarchism work in the aspect of content and ideology. However, some of its important characteristics have been ignored as this work has been defined as the representing work of anarchism. In this manuscript, I have attempted an exegetical approach and contextual understanding of Danjae’s other works while analyzing this work.

As a last work of Danjae “The Fierce Battle of Two Dragons” has prophetic and predictive characteristic about reality of that time period and it foreshadows Danjae’s next move. This work ha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Dream Sky”, “Miscellaneous Thoughts of Information”, “The Declaration of the Chosun Revolution” as well as with the work like “A Prophet Who Saw Mujin” and “The Declaration” of that time period. It has also a close connection with Koutoku Shusui’s “Christian Annihilation Theory”. Danjae traced the significance of Mujin(戊辰) from “A Prophet Who Saw Mujin” through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he believed that 1928 year will be the ‘Sacred Year of Joseon’.

‘Sacred Year of Joseon’ is connected with a passage ‘denying and

destructing everything could be the worldwide drum sound of revolution' of "The Declaration". Furthermore, 'the appearing day of dragon's 'identical building'' of "The Fierce Battle of Two Dragons" is 'the arriving day of true liberation of proletarians' of "The Declaration". Danjae said that people will achieve a genuine liberation through the revolution and destruction of empire. He said in "The Fierce Battle of Two Dragons" that dragon will appear and destroy Heavenly Kingdom by attempting a revolt and the revolution. This was the prophecy of Danjae about the collapsing of Japanese empire.

Key words: The Fierce Battle of Two Dragons, Shin Chaeho, Koutoku Shusui, Contextual-understanding, Advent of Sacred-Man in 1928~1929, Christ annihilation, Prophecy.

투 고 일 : 2017년 5월 23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